

#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위원  
parkyh@kiep.go.kr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전문연구원  
hljeon@kiep.go.kr

**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jmjang@kiep.go.kr

**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실장  
youngkim@koreaexim.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아프리카가 ‘위기의 대륙’에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 중에 있음.
  -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내전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붐이 계속 되면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대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아프리카를 “희망 없는 대륙(The hopeless continent)”으로 묘사했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부상하는 아프리카(Africa rising)”, “희망 넘치는 대륙(A hopeful continent)”을 표지기사로 다룸.
-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제반 인프라와 산업기반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건설·플랜트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음.
  -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플랜트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2의 중동’이라는 평가도 가능함.
  - 아프리카 자원의 상당부분은 장기화된 내전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어,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수송 인프라는 물론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전력산업설비 등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유망한 신흥자원개발 지역으로 오는 2020년경에는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현재 10% 내외)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KPMG와 Ernst&Young 등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 건설시장 중 하나로 꼽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정부와 건설업계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 및 아시아 등 기존의 시장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고, 계약위반, 수용·몰수, 외환통제 등 국가위험이 높음.

- 또한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열악하고, 신용등급도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함.
  - 건설·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대책이 핵심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세계은행 등 MDB와 유럽의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투자은행(EIB) 등 MDB들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금융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제 상업은행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MDB들이 선도적 투자 또는 위험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mobilization)하고 있음.
  - 세계은행을 비롯한 MDB들은 그동안 공공개발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있어 민간부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으로는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이 있으며, 이들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은 사업성은 높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자 및 용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catalyst) 역할을 하고있음.

[표 1]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소유 구조 및 주요 특징

	소유 구조	주요 특징
CDC	정부(DFID) 100% 소유 * DFID: 영국 국제개발부	개도국 투자 비중 75%(아프리카 투자 비중 50% 이상)
DEG	정부(KfW) 100% 소유	EAI(아프리카 인프라펀드)와의 협력협정 체결: 에너지 및 ICT 투자 확대
SwedFund	정부(외교부) 100% 소유	상업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분야에 집중 투자
Norfund	정부(외교부) 100% 소유	아프리카(SSA)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현재 4개 지역에 집중: 남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미)
Proparco	정부 + 민간	인프라, 금융, 기후변화 등에 집중 투자
FMO	정부 + 민간	저소득 국가에 40% 이상 투자
SIFEM	민간기업	최소 60%를 1인당 GNI 6,000달러 미만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투자

자료: Christian Kingombe *et al.*(2011, 1, pp. 3-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개발금융기관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IBRD 및 IDA는 2012년 기준 전체 용자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부터 도로, 교량, 수자원 인프라, 통신 등 다양함.
  -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용도가 낮은 최빈국인 관계로 IDA의 용자비중이 90%로 절대적으로 높고 IBRD 비중은 10%에 불과함.
  - 향후 15년 내에 IDA 수혜국의 절반 이상이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IDA 지원은 아프리카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IBRD 및 IDA의 아프리카 용자제공(2012년)

지역	비중	분야(아프리카)	비중
아프리카	21%	수자원 · 위생	18%
		교통	5%
남아시아	18%	공공행정	25%
		ICT	1%
중동 · 북아프리카	4%	농림수산업	10%
		교육	3%
중남미	19%	에너지 · 광업	18%
		금융	1%
동아시아 · 태평양	19%	보건 등 사회서비스	15%
		공업 · 교역	4%
유럽 · 중앙아시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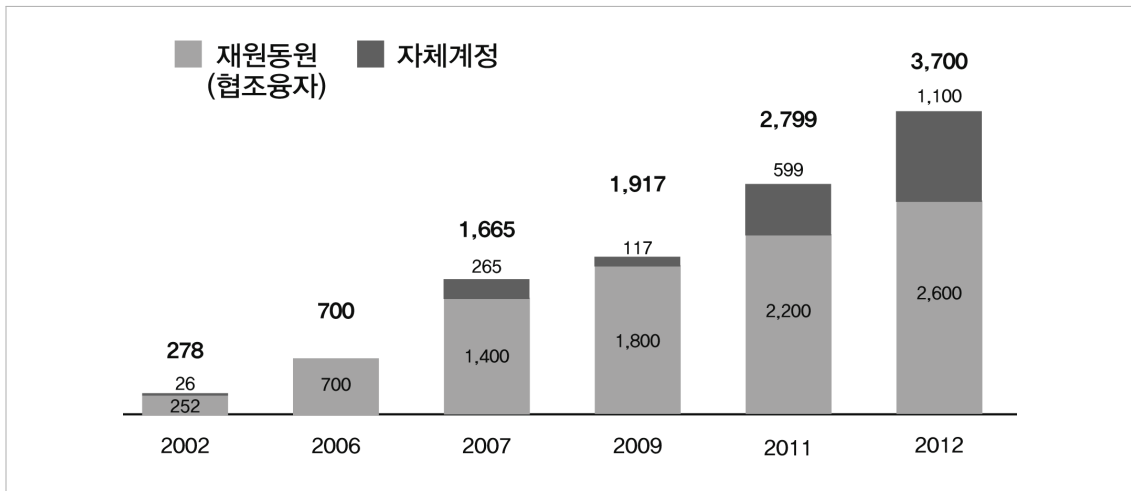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검색일: 2013. 8. 25)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확대되고 있음.

- IFC의 아프리카 금융지원 규모는 2002년 2억 7,8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54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음.
- IFC는 아프리카 민간부문 개발 잠재력에 주목하고 투자 및 용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아프리카 21개국 주요 도시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음.

[그림 1] IFC의 아프리카 금융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FC(2012, p. 3).

●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기준 아프리카(사하라 이남)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금액 기준으로는 24%)를 차지함.

- MIGA는 1988년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전 세계 지역에 대해 270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했는데, 인프라 개발 지원비중이 58%로 가장 높음.
- MIGA는 서아프리카 가스수송망, 남부아프리카 가스사업, 지부티 항만개발사업, 우간다 수력발전 프로젝트, 르완다 전력개발사업, 케냐-우간다 철도망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표 3] MIGA의 보증지원 현황(2012년)

	사업 건수		금액	
	건수	비중(%)	백만 달러	비중(%)
아시아·태평양	4	8	305.9	12
유럽·중앙아시아	20	40	928.0	35
중남미	3	6	353.6	13
중동·북아프리카	6	2	432.9	16
아프리카(SSA)	17	34	636.4	24

자료: MIGA 홈페이지(MIGA Annual Report 2012, 접속일: 2013. 7. 30).

- 유럽투자은행(EIB)이 아프리카 개발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 2007년에는 'EU-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ITF)'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이 기금은 EU 회원국의 무상원조와 EIB의 장기차관을 결합한 것으로 아프리카연합(AU)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정하거나 역내 통합에 기여하는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EIB는 모로코 항만개발(Tanger Med), 탄자니아 송전망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trans-Africa Infrastructure)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콩고(DRC) 구리·코발트 개발사업, 세네갈 다카르 컨테이너터미널 확충사업 등 여러 건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함.

[표 4]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부문별 차관제공 비중(2012년 승인기준)

(단위: 백만 UA)

	건수	금액	비중(%)
농업·농촌개발	20	308.11	8.6
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21	525.33	14.6
인프라	46	1,763.30	48.9
- 수자원 인프라 및 위생시설	13	269.68	7.5
- 에너지 인프라	14	889.66	24.7
- 운송 인프라	19	604.16	16.8
금융	4	402.76	11.2
다부문(multisector)	43	505.38	14.0
광업	1	97.73	2.7

자료: AfDB(2013), p. 23.

**3) CDC(영국), Proparco(프랑스), DEG(독일) 등 유럽의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와 수익성(financial return)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함.**

-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됨.
-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집중화방침을 결정함.
  -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를 저소득국(1인당 GDP 905달러 미만)에, 그리고 이 중 50%를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CDC는 지분출자의 절반 가까이를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에 집중하고 있음.
  - CDC는 주로 현지사정에 정통하고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펀드 운용사를 통해 현지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동안 CDC는 탄자니아 동부해안의 Songo 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이를 수도인 다루살렘 소재 발전소로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발전 플랜트 사업, 30만 도시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우간다 송전망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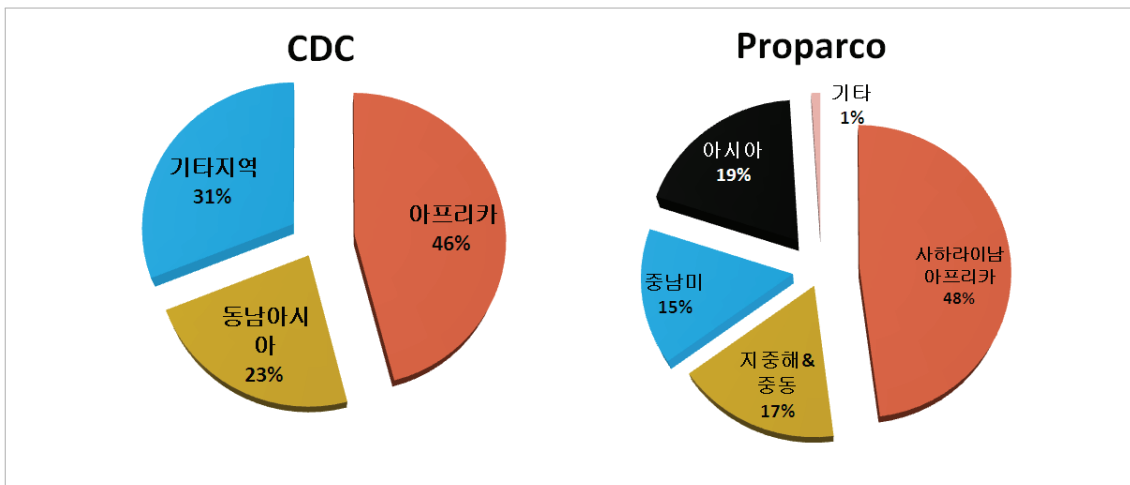
[표 5] CDC의 대표적인 아프리카 투자 사례

기업 (분야)	국가	사업 내용
Kelvin (발전소)	남아공	- 석탄을 이용한 600MW급의 발전소로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전기 보급 - CDC의 투자(2,500만 달러)로 플랜트 설비교체(이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전기 공급)
Sidi Krir (발전소)	이집트	- 천연가스를 이용한 685MW급의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렉산드리아 인근에 위치 - 이집트 전기주회사(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에 전력 판매
Songas (천연가스)	탄자니아	- Songo 섬에 천연가스 정제공장 건설 - Songo 섬과 수도(다루살렘)를 연결하는 225km 길이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Umeme (송배전)	우간다	- 아프리카펀드(Actis, Infrastructure-2)를 통해 2005년부터 4,000만 달러를 투자 - CDC가 Umeme 사 지분 100%를 소유
HTN (통신)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펀드(Helios 등)를 통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달러 이상을 투자 - HTN 사의 매출액은 3,100만 달러, 이익금은 1,300만 달러이며, 현재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 확장 추진 중

자료: CDC 홈페이지(접속일: 2013. 7.27)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프랑스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 Proparco는 CDC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금융제공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을 제공함.

[그림 2] CDC와 Proparco의 지역별 투자비중(2012년)



자료: CDC 홈페이지(접속일: 2013. 9. 10); EDF(2013, p. 44).

-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들어 협조용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음.

#### 4)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용자(co-finance)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

- 대규모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아프리카 사업에는 국가 및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대주요 참여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6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
  - 프로젝트 참여 금융기관은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ECA), 상업은행, 국부 펀드, 인프라 펀드, 이슬람금융 등 다양함.
  -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조용자의 형태를 띠고 있음.

[표 6] 아프리카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기관 참여 사례

	사 업 명	참여 금융기관
나이지리아·베냉·토고·가나	서아프리카 가스 수송망(WAGP)	IDA, MIGA, OPIC(미국), Zurich(스위스)
남아공·모잠비크	남부아프리카 가스 프로젝트	IBRD, MIGA, EIB, DBSA, ECIC, SCMB
지부티	지부티 항만 프로젝트 (이슬람 금융 활용)	MIGA, SCB, 두바이이슬람은행, 독일은행(WestLB AG)
우간다	수력발전(Bujagali)	IFC, EIB, AfDB, Proparco, DEG, FMO(네덜란드), SCB, ABSA
르완다	전력개발 프로젝트(Kivu Watt)	MIGA, AfDB, FMO, BIO, EAIF
케냐·우간다	철도망 프로젝트	IFC, IDA, AfDB, KfW(독일), FMO, BIO
모로코	항만개발(Tanger Med)	EIB, AFESD(아랍펀드)
탄자니아	송전망 사업	IDA, EIB, AfDB, JICA(일본), EDCF(한국)
콩고(DRC)	구리·코발트 개발사업	EIB, KfW, DBSA, IDC, OPIC, ONDD, EDC
세네갈	다카르 컨테이너 터미널(DCT)	MIGA, AfDB, SCB
탄자니아	가스발전프로젝트(Songo-Songo)	IDA, EIB, CDC
우간다	송전망 프로젝트(Umeme)	MIGA, IDA, CDC

자료: 연구보고서의 3장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3. 정책 제언

#### 1) 아프리카의 제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협조용자의 확대가 필요함.

- 아프리카는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독자적 금융지원 확대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조용자 형태의 금융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는 계약위반, 수용 및 몰수, 송금제한 등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함.

-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용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 아프리카는 2000년대 들어 내전 감소와 자원개발 붐 등으로 인프라 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협조용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Multi-source financing)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 국제 상업은행, 현지 금융기관, 국부펀드, 투자펀드, 이슬람금융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 및 사업별로 최적의 협조용자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위험경감과 재원조달의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7] 금융조달 재원별 주요 특징

다자개발은행 (MDB)	수출신용기관 (ECA)	양자개발금융기관 (DFI)	아프리카 현지은행 (Local Bank)	국제상업은행 (I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개발 지원</li> <li>- 대출 · PRG/PRI 제공</li> <li>- 장기 · 저리(민간사업의 경우 상업조건 지원)</li> <li>- 지원규모 작음</li> <li>- 절차적 투명성 중시(내부 절차 복잡)</li> <li>- 지원경험 많음</li> <li>- 여타 재원 조달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기업 수출 · 투자 지원</li> <li>- 대출 · PRG · 보험 제공</li> <li>- 조건부(tied) 지원(부적격 국가 지원 불가)</li> <li>- 아프리카 지원경험은 비교적 적음</li> <li>- 국익 · 경제 협력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효과 및 상업성이 높은 민간사업 지원</li> <li>- 발전 등 인프라 중점 지원</li> <li>- 지원경험 많음</li> <li>- CDC(영국)/Proparco(프랑스)/DEG(독일) 등 유럽이 적극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통화 대출</li> <li>- 남아공 등 일부 국가 이외에는 취약</li> <li>- 금융심사 기법의 미발달로 협조용자 참여에 소극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 극대화 추구</li> <li>- 보증부 대출</li> <li>- MDB 등 DFI 및 ECA 지급보증 하에 협조용자(리스크에 민감)</li> <li>- 일부 은행의 경우 지원경험 많음</li> </ul>

자료: 박영호 외(2012), p. 201 수정 · 보완.

- 협조용자는 자금력,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개발사업,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 이집트 정유사업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해 MDB 및 ECA 등과 협조용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음.
  - 공공사업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총 6건의 협조용자를 제공한 바 있음.

[표 8] 한국 유상원조(EDCF)의 협조용자 아프리카 사업

국가	승인 년도	프로젝트	금액(승인액)		협조용자 기관
			백만 원	백만 달러	
마다가스카르	2007.12	톨리아라 주 35번 국도 개보수 사업	15,354	14.12	AfDB
탄자니아	2008.12	킬라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27,184	25.0	World Bank
모잠비크	2009.11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	21,747	20.0	AfDB
말리	2009.12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23,470	21.8	AfDB
우간다	2010.9	교육개선사업	29,144	26.8	AfDB
탄자니아	2010.9	이링가-신양가 송변전망 확충사업	39,598	36.42	World Bank/AfDB

자료: www.odakorea.go.kr(접속일: 2013. 9. 25).

## 2)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음.

-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간(cross-border) 인프라 사업, 그중에서도 에너지(전력),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케냐-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데다가 수요예측이 어려워 시장위험이 높고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3) 위험분석 및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선정

-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함.
  - 아프리카는 쿠데타 등에 따른 정정불안 이외에도 거시경제의 불안정, 금융·법률·상법 등 제반 사업관련 제도의 미비, 송금 중단 또는 지연, 정책 및 제도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일반 상거래의 위험이 높음.
  -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이 소요됨.
  -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위험분석 및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아프리카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금, 환경영향평가, 입찰서류 준비 등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전체 사업비의 약 4%)과 시간이 소요됨.
  - 아프리카에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며 이 중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
  - 사업타당성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음.

#### 4)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서비스 활용

- 국내 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출자, 대출, 보증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금융자문 서비스는 충분치 않은 상황임.
  -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금융자문기관은 사업주를 도와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잠재적 또는 명시적인 위험에 대한 경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진단하고 자금수요에 대한 금융계획(financial planning)을 수립함.
-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음.
  - 이들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조달계획 수립, 재무 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추진(Mandated Lead Arranger: MLA)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표 9] 아프리카의 주요 금융자문사(2012년 기준)

순위	금융 자문사	금액 (백만 달러)	거래 건수	비중(%) (금액기준)
1	Societe Generale	3,697.50	1	65.6
2	Ernst & Young	838.03	3	14.9
3	HSBC	350.00	1	6.2
4	Fieldstone Private Capital	326.02	1	5.8
5	Macquarie	254.81	1	4.5
6	Endeavour Financial	170.00	1	3.0
	총 계	5,636.36	8	100.0

자료: Infrastructure Journal([www.ijonline.com/LeagueTables](http://www.ijonline.com/LeagueTables), 접속일: 2013. 9. 20).